

# Ch

## 5. 목이 아플 때는 모과차가 좋다고 하셨어요

- **학습목표** ‘-다고 하다’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진술이나 설명의 내용을 인용하여 전할 수 있다.
- **학습내용** 문형 : -다고 하다 (간접화법: 평서문)  
새 어휘 : 편찮다, 힘들다, 모과차, 갑자기, [명사](이)라도, 다, 타다



### 대화

**지나** 엄마, 어디 편찮으세요?  
**엄마** 응, 목이 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어.  
**지나**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감기래요?  
**엄마** 목이 많이 부었대.  
**지나** 나도 지난번에 목감기에 걸려서 많이 아팠는데...  
 엄마 힘드시겠다.  
**엄마**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약 먹고 좀 쉬면 좋아질 거라고 하셨어.  
**지나** 그래요? 제가 따뜻한 모과차라도 한 잔 타 드릴까요?  
**엄마** 갑자기 모과차는 왜?  
**지나** 할머니께서 목이 아플 때는 모과차가 좋다고 하셨어요.  
**엄마** 맞아! 그러셨지. 우리 딸 다 컸네. 그럼, 부탁해.

### 교수방법 TIP



- ☑ 학생 수준에 따라 듣기 횟수를 조절한다.
- ☑ 감기에 좋은 음식이나 나만의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 내용 이해 질문

- (1) 목감기에 걸리면 목이 아프고 붓습니다.  
 답: O (엄마는 목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프고 부었습니다.)
- (2) 지나의 할머니께서 모과차가 목에 좋다고 하셨습니다.  
 답: O (할머니께서 목이 아플 때는 모과차가 좋다고 하셨습니다.)

- ☑ 교사가 내용 이해 질문을 추가할 수 있다.

1. 지나는 감기에 걸린 적이 있습니까?
2.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 어휘

편찮다

to be sick (honorific)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 할머니께서 눈이 아프시다

힘들다

to be hard, difficult

(몸/마음/일)이/가 힘들다

모과차

quince tea

모과차를 타다/끓이다

갑자기

suddenly, abruptly

갑자기 생각나다



[명사](이)라도

even, even if NOUN

이거라도, 저거라도, 그거라도

다

all

모두, 완전히, 전부, 다 해서, 모두 다

타다

to brew up

(차/커피)를 타다



## 교수방법 TIP



- ☑ '편찮으시다'와 '아프시다'가 쓰이는 상황을 비교해서 설명한다.  
예)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  
할머니께서 눈이 아프시다.

- ☑ 한국에서 마시는 몇 가지 과일차 어휘를 확장해서 제시할 수 있다.  
예) 유자차, 매실차, 모과차 등



## 문법 학습

교수방법 TIP



### 간접화법(평서문)

1. 간접화법은 화자가 다른 사람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를 상대에게 전달할 때 사용한다.

화자가 듣거나 알게 된 원래의 정보(말이나 글)가 평서문일 경우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쓰인다.

- 1) 동사의 현재형: -ㄴ/는다고 하다
- 2) 형용사의 현재형: -다고 하다
- 3) 동사와 형용사의 과거형: -았/었/였다고 하다
- 4) 동사와 형용사의 미래형이나 추측: -(으)ㄹ 거라고 하다
- 5) 명사: -(이)라고 하다
- 6) 질문: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해요/했어요?"라고 말한다.

#### 2. 동사의 현재형: -ㄴ/는다고 하다

- 1) 동사의 어간 말음이 모음일 때: -ㄴ다고 하다

예) 지나가 "지금 비가 와요"라고 말했어요.

→ 지나가 지금 비가 온다고 말했어요.

- 2) 동사의 어간 말음이 자음일 때: -는다고 하다

예) 지나가 "지금 밥을 먹어요."라고 말했어요.

→ 지나가 지금 밥을 먹는다고 말했어요.

#### 3. 형용사의 현재형: -다고 하다

예) 지호가 "이 신발은 아주 비싸요."라고 말했어요.

→ 지호가 이 신발은 아주 비싸다고 말했어요.

#### 4. 동사와 형용사의 과거형: -았/었/였다고 하다

예) 유리가 "어제 영화를 봤어요."라고 했어요.

→ 유리가 어제 영화를 봤다고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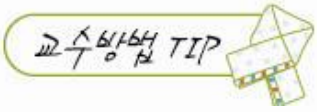
#### 5. 동사와 형용사의 미래형이나 추측: -(으)ㄹ 거라고 하다

예) 아버지는 "내년에 가족 여행을 갈 거야."라고 말했어요.

→ 아버지는 내년에 가족 여행을 갈 거라고 말했어요.



문법 학습



간접화법(평서문)

6. 명사: -(이)라고 하다

예) 할머니께서 "이게 한복이야."라고 하셨습니다.  
 → 할머니께서 이게 한복이라고 하셨습니다.

|     | 과거<br>(어제, 옛날) | 현재<br>(지금, 요즘, 보통) |            | 미래/추측<br>(내일, 나중에) |
|-----|----------------|--------------------|------------|--------------------|
| 명사  | -이었/였다고<br>하다  | -(이)라고 하다          |            | -일 거라고<br>하다       |
| 형용사 | -았/었/였다고<br>하다 | -다고 하다             |            | -(으)ㄹ 거라고<br>하다    |
| 동사  |                | 어간이 모음으로<br>끝날 때   | -ㄴ다고<br>하다 |                    |
|     |                | 어간이 자음으로<br>끝날 때   | -는다고<br>하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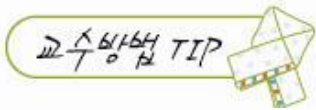
7. 간접화법에서의 주어 변화

- 직접화법의 '저'는 간접화법에서 '자기'가 된다.  
 예) 민이 "저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해요."라고 (말)해요.  
 ⇒ 민이 자기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한다고 (말)해요.
- 직접화법의 '제'는 간접화법에서 '자기의'가 된다.  
 예) 유리가 "이것은 제 핸드폰이에요."라고 (말)했어요.  
 ⇒ 유리가 이것은 자기의 핸드폰이라고 (말)했어요.
- 어른의 이야기일 경우에는 간접화법에서 '자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 선생님께서 "이것은 제 책이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선생님께서 이것은 선생님의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간접화법에서 주어가 변화할 때, 어른의 경우 '자기'를 사용하면 무례하다는 것을 주의시킨다.



문법 학습



간접화법(평서문)

8. 간접화법의 축약형

간접화법 표현은 가끔 '-고 하-'가 탈락되어 축약이 되기도 한다. 이것을 축약형 이라고 한다. 간접화법의 축약형은 한국어 구어에서 자주 사용이 된다.

예) 가: 엄마! 저게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래요.

나: 그래? 저렇게 입으니까 예쁘네.

예) 가: 제주도 는 뭐가 유명해요?

나: 제주도 친구한테서 들었는데 돌하르방과 유채꽃이 유명하대요.

예) 가: 지나야, 너 왜 껌질도 안 까고 먹어?

나: 응, 껌질에 비타민이 더 많대. 그래서 연예인들은 과일 먹을 때 껌질도 다 먹는데.

|     | 격식체           |         | 비격식체      |        |
|-----|---------------|---------|-----------|--------|
|     | 간접화법          | 축약형     | 간접화법      | 축약형    |
| 명사  | -(이)라고 합니다    | -(이)랍니다 | -(이)라고 해요 | -(이)래요 |
| 형용사 | -다고 합니다       | -답니다    | -다고 해요    | -대요    |
| 동사  | -ㄴ/는다고<br>합니다 | -ㄴ/는답니다 | -ㄴ/는다고 해요 | -ㄴ/는대요 |

1. 대화 연습

1) 가: 우리가 오늘 집에 온다고 했지?

나: 네, 엄마. 맛있는 음식 좀 해 주세요.

2) 가: 민이 오빠는 한국어를 잘 하지?

나: 응, 어렸을 때 한국에서 5년 동안 살았다고 했어.

3) 가: 지나야, 책에 그 빨간색이 뭐야?

나: 어, 이거 '물감책갈피'라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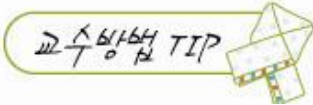
4) 가: 여보, 지호는 아직 안 왔어요?

나: 네, 오늘 친구 생일파티가 있어서 늦게 올 거라고 했어요.

☑ 학생들이 짝을 지어 대화 연습을 할 수 있다.



**연습**



1. 다음을 보고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 지나 : "작년에 아버지한테서 자전거 타는 것을 배웠어요."  
 [질문] 지나가 뭐라고 말해요?  
 [대답] 지나는 작년에 아버지한테서 자전거 타는 것을 배웠다고 말해요.

|      | 작년에  | 요즘  | 다음 달에             |
|------|--|---|-------------------|
| 지나   | "아버지한테서<br>자전거 타는 것을<br>배웠어요."   |  | "아르바이트<br>할 거예요." |
| 할아버지 |  | "아침마다 산에<br>올라가서 운동해."  | "노래를<br>배울 거야."   |

1. 지나는 요즘 뭘 한다고 해요?
  - 1) 주말마다 영화 보러 간다고 해요.
  - 2) 주말마다 영화 보러 가다고 해요.
  - 3) 주말마다 영화 보러 가는다고 해요.

**답: 1) 주말마다 영화 보러 간다고 해요.**
  
2. 할아버지께서는 작년에 뭘 하셨다고 해요?
  - 1) 컴퓨터를 배우신다고 해요.
  - 2) 컴퓨터를 배우셨다고 해요.
  - 3) 컴퓨터를 배우실 거라고 해요.

**답: 2) 컴퓨터를 배우셨다고 해요.**
  
3. 지나는 다음 달에 뭘 할 거래요?
  - 1)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 2) 아르바이트를 하래요.
  - 3) 아르바이트를 할 거래요.

**답: 3) 아르바이트를 할 거래요.**



연습

교수 방법 TIP



☑ 학생이 직접 대화문의 역할을 맡아 읽어보게 한다.

2. 다음 전화 통화를 보고 밑줄 친 부분을 알맞은 형태로 바꾸십시오.

민 : 지호야, 아까 우리가 전화했어.

지호 : 그래? 뭐라고 했어?

민 : 우리가 "약속에 늦게 올 거야."라고 했어.

1) -> 약속에 늦게 올 거라고 했어.

지호 : 왜? 무슨 일 있대?

민 :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해."라고 했어.

2) ->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어.

지호 : 아! 그렇구나. 알았어. 고마워.



3. 다음 <보기>처럼 그림을 보고 각각의 친구가 한 말을 다른 친구에게 간접화법 축약형으로 전해 보십시오.



<보기> 지나는 한국 노래를 좋아한대

1) 지호는 어제가 자기 생일이었대.

2) 유리는 세계여행을 하고 싶대.

3) 민은 내년에 한국에 갈 거래.



## K-town Story

\*\*년 \*월 \*일 날씨 \* (맑음)

오늘 엄마가 목이 좀 아프시대요.

의사 선생님이 엄마한테 목감기라고 말씀하셨대요.

엄마가 많이 힘드실 거 같아서 조금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따뜻한 모과차를 한 잔 타 드렸어요.

예전에 할머니께서 목이 아플 때는 모과차가 좋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 하니깐 조금 감동하신 거 같아요.

저한테 다 컸다고 칭찬하셨어요.

엄마 감기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교수방법 TIP



## 내용 이해 질문

1. 대답해 보세요.

1. 윗글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2. 오늘 엄마는 어디에 다녀오셨습니까?
3.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 저는 엄마한테 무엇을 해 드렸습니까?

2. 다음 문장을 보고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하세요.

1. 엄마는 목감기 때문에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 O , X )
2. 저는 오늘 할머니 댁에서 모과차를 가지고 왔어요. ( O , X )
3. 할머니께서 목감기에는 모과차가 좋다고 하셨어요. ( O , X )

답: 1) O 2) X 3) O





## 과제

어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친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학교에서 어제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엄마에게 전달해 봅시다.

1. 친한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2.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3. 다른 친구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4. 나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5. 어제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다고 하다’ 또는 ‘대요’를 사용하여 엄마에게 전달해 봅시다.

### 예시

엄마, 어제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게임을 했어요. 우리는 몇 개의 팀을 만들었어요. 4명이 한 팀이 되었어요. 그 게임은 처음 한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조용히 옆 사람에게 한 다음, 그 사람은 또 그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서 마지막 사람이 첫 사람이 한 말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선생님은 이 게임이 재미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유리와 같은 팀이 되었어요. 유리가 첫 번째로 말을 했어요. 유리는 나중에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다음 주에 대통령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 친구는 다음 주에 개구리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다음 주에 개구리가 올 거라고 말했어요. 우리 팀 친구들은 제 말을 듣고 “와~” 하고 웃었어요.

선생님은 우리가 처음에 한 말을 물어보셨어요. 유리와 다른 친구들이 한 말은 모두 달랐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한 말도요. 왜 그렇게 다르게 들었을까요?

선생님은 우리들 모두 열심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 교수방법 TIP



- ☑ 단문 위주의 글이 되지 않도록 연결어미 사용을 권장한다.

- ☑ 의미 단락별로 문단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보충 자료**

\*〈보기〉와 같이 쓰세요

**보기**

엄마는 아빠에게 “날씨가 추워요”라고 말했어요.  
=> 엄마는 아빠에게 날씨가 춥다고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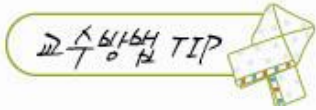
1. 지나는 지호에게 “숙제가 너무 많아”라고 말했어요.  
=> 지나는 지호에게 숙제가 너무 \_\_\_\_\_ 말했어요.

2. 지호가 민에게 “자전거를 잘 타네!”라고 말했어요.  
=> 지호가 민에게 자전거를 잘 \_\_\_\_\_ 말했어요.

3. 아빠가 엄마에게 “그건 어제 산 지호 선물이에요”라고 말했어요.  
=> 아빠가 엄마에게 그건 어제 산 지호 \_\_\_\_\_ 말했어요.

4. 유리 엄마가 엄마에게 “내일부터 백화점 세일을 할 거예요”라고 말했어요.  
=> 유리 엄마가 엄마에게 내일부터 백화점 세일을 \_\_\_\_\_ 말했어요.

5. 지나는 엄마에게 “어제 할아버지하고 공원에서 산책했어요.”라고 말했어요.  
=> 지나는 엄마에게 어제 할아버지하고 공원에서 \_\_\_\_\_ 말했어요.



- 예시 답안
1. 많다고
  2. 탄다고
  3. 선물이라고
  4. 할 거라고
  5. 산책했다고